

루마니아, 최근 경제동향 및 교역현황

<표 1> 동부유럽 4개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2007년 기준)

(금액단위: 억 달러,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GDP	4,238	1,340	1,712	1,639
인구(백만 명)	38.1	10.0	10.2	21.6
1인당 GDP	11,123	13,400	16,784	7,588
경제성장률	6.5	1.7	6.0	5.8
실업률	12.8	7.4	6.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2.5	8.0	2.9	4.8
재정수지/GDP	△1.4	△5.6	△2.5	△2.5
상품수출	1,455	899	1,184	394
상품수입	1,576	886	1,145	641
경상수지/GDP	△3.6	△5.5	△3.7	△14.2
총외채잔액	1,686	1,131	701	722
환율(연평균,달러)	2.77	183.6	20.29	2.44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1. 경제동향 및 전망

<표 2> 루마니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06	2007	2008f
경제성장률	7.7	5.8	5.5
소비자물가상승률	6.6	4.8	6.4
재정수지/GDP	△1.7	△2.5	△3.1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1) 경제성장

- 중앙집권 및 관료주의 체제로 상징되는 공산권의 유산과 1980년대 여타 중·동부 유럽지역 경제권이 경험하였던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건너편 여파로 시

장경제 체제전환 속도가 지연되었음.

-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개혁 속도는 실질적으로 느린 편인데, 1990-96년 사회민주당(SDP) 정부는 시장경제에 요구되는 광공업, 농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적 변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당시 루마니아 정부는 적자기업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채무연체 누적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함.
- 1996-2000년의 민주협의회(DC) 정부는 국영은행의 민영화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금융 연계시스템 작동 등의 분야에서 운영 미숙을 드러냄. 1990년대 국영은행은 적자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soft credit 등)함에 따라 금융부문의 부실화가 나타남.
- 2001-04년의 사회민주당(SDP) 정부는 2001년 10월 IMF와 18개월간의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말 집권한 국민자유당(NLP) 정부는 16%의 단일 소득세율 도입, 노동법규(Labour Code) 개정(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자본계정 자유화 등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자본계정 자유화 조치는 외자유입을 유발하여 자국통화(Lei)의 실질적인 평가절상(appreciation) 효과가 나타남.
- 루마니아 통화당국은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책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여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거시경제 불균형 심화로 IMF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갈등이 초래됨.
- 1997-99년 중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루마니아의 경제는 대 EU 수출 호조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00년에는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2001년에는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와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당초 기대보다 높은 5.7%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 2002년에는 EU의 경기회복 불투명, IMF와 합의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긴축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5.1%로 소폭 둔화되었음. 그러나 2004년에는 가계 및 공공부문의 소비증가와 양호한 기상조건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8.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05년에는 급속한 여신증가 및 소득세율 인하조치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으나, 홍수피해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전년 대비 13.8% 감소), 다자간 섬유협정(MFA) 종료로 인한 섬유산업의 타격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4.3% 포인트 하락한 4.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06년에는 고용 증대, 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전년 대비 12% 증가) 및 인프라 투자(EU 가입 계기)로 인한 고정투자(전년 대비 13.7% 증가) 증대로 경제성장률은 7.7%로 상승함.
- 2007년에는 내수 진작, 건설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 부문 부진(15% 생산 감소)으로 5.8%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재출·소득정책이 완화기조(임금 상승, 여신 증대, 고용 증가)를 보이면서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루마니아 거시경제상황은 경기하강 조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경색 등으로 전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됨.

(2) 소비자물가

- 1990년대의 미숙한 통화정책 운영으로, 한 자리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불안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음.
- 2001년에는 국제유가 안정, 농산물 가격불안 해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음. 2002년에도 강력한 긴축정책 유지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환율 하락(자국통화 강세), 에너지가격 조정 등으로 인해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와 합의한 목표치(22%)를 상회한 22.5%에 달함.
- 2003년에는 통화당국의 물가 억제 및 화폐가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금융·외환정책 시행의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3%로 억제되기 시작하였음. 2004년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9%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4년 7월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조건인 9%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국제유가 상승,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20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를 기록하면서 중앙은행(NBR)의 억제 목표치인 7.5%를 상회함. 2004년 이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이 2005년 말 50%에 달하였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신규 화폐(Lei)의 평가절상 조치가 수출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 2006년에는 민간소비 증가 및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 통화강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6%로 하락하여 2006년도 중앙은행의 억제 목표치(2005년 8월 5.0%로 조정)를 상회한 데 이어 2007년에는 4.8%로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됨.
- 2008년에는 재정지출·임금 정책의 완화조치(공공지출 증가, 임금 상승)가 시행되어 내수가 진작되는 반면, 연중 강력한 인플레이 압박(통제가격 추가인상, 식료품가격 급등, 특별소비세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루마니아 정부의 신중한 물가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3) 재정상황

- 2004년에는 공공부문 지출 억제, 특히 에너지가격 조정 및 국영기업 임금인상과 더불어 세수 확대, 조세행정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의 2.3%에서 1.1%로 개선됨.
- 2005년에는 재정지출 억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이 예상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9%로 개선됨.
- 루마니아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소득세율을 16%(법인세: 25% → 16%)로 인하하면서 단일화하였음. 이에 IMF는 소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일 소득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세수기반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어 향후 단일 소득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에는 부가가치세율(조세수입의 50% 차지) 19% 유지, 근로소득세 인하(5-10%)로 재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EU 가입을 위한 인프라,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재정지출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에는 의회총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긴축재정정책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재정지출 압박이 늘어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 교역현황

<표 3> 루마니아 주요 대외거래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f
상 품 수 출	32,336	39,449	46,440
상 품 수 입	47,172	64,110	82,015
대외지급준비자산	30,211	39,771	50,295
경상수지/GDP	△10.5	△14.2	△17.6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 공산체제 말기 국제금융시장 자본조달이 제한을 받으면서 1990년대에는 경제 발전 속도가 제한적이었으며, 중·동부 유럽지역 가운데에서도 산업현대화가 늦어 FDI 유입이 부진하고 수출증가도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EU 경제통화동맹(EMU)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1996년 외환체계 자유화, 1997년 1월 환율체계 통합, 1998년 경상계정 태환제도 도입, 2005년 자본계정 완전 태환제도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함.
- 2003년 중반 이후에는 자국내 산업생산이 내수 증가율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급속한 소비자신용 증대로 인한 자동차 등 소비재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함.
- 한편,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루마니아의 수출기반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노동 및 자원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제품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 및 섬유·직물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등 신흥경제권과의 수출 가격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 이후 자본계정 자유화 조치 및 환율정책 조정으로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지속됨.

<표 4> 루마니아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중

(2006년 기준)

수출상대국	이탈리아(17.9%), 독일(15.7%), 프랑스(7.5%)
수입상대국	독일(15.2%), 이탈리아(14.6%), 러시아(7.9%)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 1999부터 2005년 중반까지는 루마니아 중앙은행이 통화 바스켓에 대한 자국 통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허용하는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함. 특히, 2004년 10월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선언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으로 선회함.
- 2005년 8월에는 중앙은행이 관리변동 환율제도에서 물가억제 목표치를 설정 (inflation-targeting)하면서 환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언함.
-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EU 가입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루마니아를 흑해 및 중동지역에 대한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하면서 EU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EU-25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4년 73%에서 2005년에는 68%로 하락함.
- 수출산업은 의류, 신발류, 가구 등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기계·설비의 수입비중 20% 차지)이어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부문의 수입 증가 이외에도 FDI 유입증대에 따른 신규설비, 기계류, 자동차 등의 상품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은 8.9%를 기록함.
- 200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70%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의 10.5%에서 2007년에는 14%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2008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더욱 상승하여 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수지 포지션 관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루마니아의 경상수지는 FDI를 통해 주로 보전되었는데, 2006년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90%가 FDI로 충당되었으나 2007년에는 40%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차입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2008-09년에는 민영화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부충격에 의한 취약성 정도가 국제수지 관리능력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분석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